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9 권 48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 | | | | |
|---------|---------|----------|----------|---------|
| 미 사 성 가 | 입당 (25) | 봉헌 (212) | 성체 (168) | 파견 (39) |
|---------|---------|----------|----------|---------|

제1독서 | 집회 35,15ㄴ-17.20-22ㄴ

화답송 | 시편 34(33),2-3.17-18.19와 23(㉞ 7ㄱ)

- ◎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 주셨네.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리라. ◎
-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역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해 주셨네. ◎
-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하시고, 영혼이 짓밟힌 이를 구원해 주신다. 주님이 당신 종들의 목숨 건져 주시니, 그분께 피신하는 이 모두 쫓값을 벗으리라. ◎

제2독서 | 2티모 4,6-8.16-18

복음환호송 | 2코린 5,19 참조

-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복음 | 루카 18,9-14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 날짜 | 미사해설 | 독서 | 복사 |
|-------|--------|--------|-------|
| 10/20 | 이 그레이스 | 김 헬레나 | 박 다니엘 |
| 10/27 | 이 그레이스 | 고 안나 | 박 다니엘 |
| 11/3 | 유 요한 | 김 유스티나 | 박 다니엘 |
| 11/10 | 이 그레이스 | 김 헬레나 | 박 다니엘 |

영어독서: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 지난 주일 | 봉헌금 | 2 차 봉헌 | 교무금 |
|-------|-------|--------|-------|
| | \$230 | \$50 | \$250 |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김 마론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9/28 | 김 마론/ 김 헬레나 | 11/2 | 유 요한/유 마리아 |
| 10/5 |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 11/9 |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
| 10/12 | 손 아놀드/ 손 켄마 | 11/16 | 홍 마르코/ 홍 아네스 |
| 10/19 | 이 글라라/ 장 글라라 | 11/23 | 김 요아킴/ 고 안나 |
| 10/26 | 박 벨라렛다/ 정 루시아 | 11/30 |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성체조배는 11 월 7 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첫번째 일요일 오후 7시 30분

임원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원회의는 11 월 3 일 입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8:00

기도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3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성경공부: 매주 주일미사 후 (둘째 주 제외)

매주 미사후 친교실에서 성경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소 공동체 모임: 주일 미사 후 친교실

매달 둘째 주일 미사 후 친교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다음 소 공동체 모임은 11 월 10 일 입니다.

Homeless Feeding (11/3 토, 7:00am-12:00pm)

홈리스를 위한 조식 봉사가 이번 주 토요일 St. Vincent de Paul 에서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주소: 300 Baker St, Bakersfield, CA 93305

가을 축제 Nov 3rd 2019

다음 주 주일 11 월 3 일 가을 축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분의 참여와 봉사를 기다립니다.

Daylight Saving Time End (11 월 3 일)

다음 주 주일 썬머타임이 해제됩니다.

말씀의 이삭

간절함

-신달자 엘리사벳 | 시인-

제가 되는 순간까지 같이 가는 동반자가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바로 늘 제 옆을 지키는 나무 목주와 실매듭 목주입니다. 아주 오래 함께 살아와서 조금은 닳아 있는 이 목주 두 개는 제 살붙이나 같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구슬과 유리, 옥으로 만든 예쁘고 화려한 목주를 선물 받았지만, 전 저와 함께 영원히 재가 될 수 있는 이 두 개의 목주로 늘 기도합니다. 영원한 친구이며 동반자입니다. 며칠 전 어느 지인이 '나는 내 마음을 따라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은 때때로 공정한 도덕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따를 수 없는 갈등에서 저를 지켜 주는 힘이 바로 목주입니다. 마음을 따르려고 하는 본심의 갈등 속에서 시가 태어나기도 하지만, 끝까지 절 바르게 살게 하고 지켜주는 것은 목주입니다. 전 공정한 관찰자를 가슴에 지닌 이성적 인간이 못 됩니다. 바람의 사촌쯤으로 태어났는지 너무 자주 흔들립니다. 저를 믿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성당에서 여러 차례 강의를 하고, 시집을 열 권 이상 세상에 내어놓고, 많은 사람 앞에서 강의를 하지만 위선이 왜 없겠습니까. 비신자보다 요상하게 자기 진심을 가리며 분별력의 웃음으로 위선을 날리지만, 제 기도가 길어지는일, 제 침묵이 길어지는 일은 늘 반성 안에서 '내 탓이요'를 잘게 잘게 씹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아래 성모님이 새겨진 목주를 들고 앉으면 '이미 다 아는 사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없는 거리의 버팀목이라 마음속이 딱 차고 하염없이 행복합니

다. 그런 동반자이기에 저는 두려움이 없을까요? 드린 말씀대로 '거리 없는 거리의 동반자'가 제 안에 있는데도 본능적인 공포는 멈추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저는 새벽 두 시쯤 캄캄한 창을 내려다보며 허공을 던고 선 두려움이 솟구칩니다. 목주 두 개로는 부족한 듯 이 세상 목주를 모두 어깨에 메고 절룩이며 남산에라도 올라야 할까요. 아무리 온몸에 목주를 메도 예수님의 십자가 한 조각도 따르지 못하면서 목주 찬양을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닌지 다시 부끄러워집니다. 특히 스스로 삶의 여정이 순탄치 못하다고 '왜 저에게'라고 억지를 부려 보기도 하지만 누군들 가슴에 폭탄이 없겠습니까. 고요히 소리 없는 폭탄을 성심으로 누르느라 홀로 목주를 돌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생각하면 참 많은 행운을 선물 받았습시다. 이것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가슴에 성호를 긋습니다. 어둠도 공포도 주님이 다 아시는 삶의 한 조각이라 생각하고 친해지려고 합니다. 더 낮아지려 합니다. 부족한 저는 단 한마디 '간절함'으로 살려 합니다. '간절함'이 제 자산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평화의 성수 한 모금이라도 오늘 다시 제 마른 입술을 축이려고 이른 새벽 성당 갈 채비를 합니다.

복음묵상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루카 18-13

(서울주보에서)